불자 지성들, 전환기 포교 전략 논하다

교불련, 8월 17~18일 '2017교수불자대회' 열어

불자 인구 300만 명 감소라는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불자 지성인들이 머리를 맞댔다.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심익섭, 이하 교불련)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각종 총인원서 '전환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기조 강연과 6개 분과 발표로 나눠 진행된 교수불자대회에서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별 전환기 포교 전략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의 전환기 전략을 제안한 김은영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2004년 포교 10개년 계획 이후 종단 차원의 중장기 포교 전략이 부재함을 지적하고 시대에 맞는 포교 전략을 세울 것을 충고했다.

또한 종단 정체성 성찰을 통해 조계종만의 불교 신행 우수성을 알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알릴 수 있는 홍보공간을 전국에 설립할 것을 제언했다.

김 연구원은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홍보관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불교문화를 일반에 알리기 위한 곳이지 조계종만의 차별화된 불교 문화나 신행을 알리는 공간은 아니다"며 "조계종을 알리는 공간이자 포교 중장기 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홍보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성월 중부대 교수는 △포교연구소 설립 · 운영 △IT 기반한 포교프로그램 개발 △적극적 사회참여 등을 태고종의 포교 전략으로 제시했다.

배 교수는 "조직과 체계를 갖추고 합리적 포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포교연구소를 설립해 포교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입안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전법활동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보관 · 포교연구실 설립 등
주요종단별 포교 전략 제시
4차 산업 시대 전법 방안도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 논의

이어 "스마트폰 등 온오프라인 포교 방법의 개발과 운용에 대해서도 포교연구소가 전문 인력을 통해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각종에 대해서는 '진각 100년 교화 전략'이라는 구체적 실천 방향이 제안됐다. 진각종 교법연구실 상임연구원 성제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각종이 신행 문턱을 낮추고 교학 정비 · 스승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자 교수들의 모임인 (사)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8월 17일부터 18일까지 진각종 총인원서 '전환기 한국불교'를 주제로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신행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진각교전〉을 세로쓰기가 아닌 가로쓰기로 편집을 바꿀 것을 비롯해 의자 설치 보편화, 불사 시간 조정 등이 제안됐다.

성제 정사는 "'희사하고 염송하면 만사가 해결된다'는 안일한 수행지침만으로는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교법이나 수행체계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리적인 연구를 통한 이론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대에 맞는 전법 방향도 제시됐다. 백도수 능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법방안 고찰'을 통해 빅데이터 · SNS 전법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법 · 설법 주체자는 빅데이터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며 "직간접적 대면의 한계를 넘어서야 하고 조건이나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설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TV스크린 시대, 시청각 자료를 넘어 컴퓨터와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무한정 자료 활용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전법 · 설법자가 해야 할 일은 자료를 준비하고 구성하고 자료를 업로드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혀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불련은 라운드 테이블 논의를 통해 '대학불교네트워크 창립'을 토의했으며, 내년 교불련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제학술대회, 출판사업 등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화성 용주사 대웅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 8월 14일 공고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던 불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사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경기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942호로 지정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화성 용주사는 장조(사도세자)의 묘소인 융릉(隆陵)의 능침사찰(陵寢寺刹)로 쓰였던 곳으로, 제사 물자를 준비하기 위한 조포사(造泡寺) 역할을 했다.

1790년 2월 19일에 공사를 시작해 4월 15일 상량, 9월 29일에 불상이 봉안되었는데, 왕실이 공사를 발주하고 관청이 재원을 조달하는 등 건립 계획부터 공사감독까지 일관되게 국가가 주도한 관영공사였다.

대웅보전은 용주사의 주불전으로 여러 번의 중수가 있었지만, 외부 단청을 제외하고는 처음 지었을 때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多包系) 팔작지붕의 건물로 18세기 불전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장대석 기단(長臺石 基壇)과 원형주좌(圓形柱座)를 둔 사각의 초석, 지붕의 취두와 용두, 양성바름 등 시공에 정성을 기울여 능침사찰로서 건물의 격을 잘 보여준다. 다포 양식의 공포와 초각(草刻) 수법은 창건 당시의 시대적 특성을 갖추고 있다.

문화재청은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은 능침사찰의 주불전으로 권위와 격식, 시대성을 잘 간직하고 있다"며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지속가능 발전 위한 불교의 역할은

불교평론, 8월 25일 학술심포지엄

현대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불교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계 학술 계간지인 〈불교평론〉은 오는 8월 25일 오후 1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교적 지혜'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은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문명의 사멸과 지속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로 시작된다.

이후 장성우(동국대)의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 이승숙(미르문화원 대표)의 '지속가능한 식량문제 해결의 길' · 이철헌(동국대)의 '환경위기와 생태적 사회를 위한 불교적 지혜' · 유상호(한양대)의 '생명에 대한 간섭과 불교적 지혜' · 이찬수(서울대)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폭력과 평화구축의 길' · 박병기(교원대)의 '교육문제의 불교적 해석과 대한 모색'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초기불교로 해석한 기신론 강의 열린다

이중표 교수 9월부터

초기불교의 관점에서 〈대승기신론〉을 해석하는 강좌가 열린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는 9월부터 '초기불교로 풀어본 알기 쉬운 〈대승기신론〉' 강좌를 진행한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법련사에서 9월 9일~12월 23일 매월 2 · 4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광주에서는 광주불교교육원에서 9월 14일~12월 14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구례에서는 구례읍장애인복지관에서 9월 16일~12월 30일 매월 1 · 3 · 5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강의가 진행된다.

이 교수는 "'모든 것은 함께 연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 아닌 것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승기신론'의 취지를 초기불교 관점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010-3600-7890, 광주 010-4783-6673, 구례 010-9052-8179

대승 경전에 담긴 식물, 무엇이 있나

민태영 불교식물연구원장 '경전 식물 연구' 박사 논문

식물, 대승을 비유적 표현
'불교식물학' 정립 계기를

대승 경전에 나타난 식물들을 분석한 박사학위 논문 발표됐다.

민태영 한국불교식물연구원장은 '불교경전에 나타난 식물 연구'로 동국대 대학원 한국불교융합학과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민 원장은 논문에서 대승불교 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과 불교사서(史書)인 〈삼국유사〉에 나타난 식물들을 분석했다.

민 원장에 따르면 〈화엄경〉에는 97회 35종, 〈법화경〉에는 62회 27종, 〈열반경〉에는 210회 79종, 〈삼국유사〉에는 119회 56종의 식물이 수록돼 있었다. 연구 대상에 수록된 총 식물 종수는 122종이었다.

이를 통해 "대승 경전과 사서에 있어서 식물은 인간을 대변한 혹은 투영된 사유와 깨달음의 존재자로 그려지고 있었다"고 민 원장은 주장했다.

실제, 〈화엄경〉에서 연꽃은 '붓다'와 '법' 자체였으며, 보리수 또한 형상화된 연꽃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역할을 했다. 〈법화경〉에서 연꽃은 경의 명칭으로서 그 수승함을 천명하고 있다.

〈열반경〉에서는 수행을 통한 불성의 개발과 정토의 구현을 설하면서 정토의 구현은 연꽃으로 표현된 '처염상정'과 '화과동시'로 드러났다. 사라수는 열반사덕을 가능케 하는 식물로서 종취(宗趣) 자체이면서 그 대상이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연꽃과 대나무를 통해 그들의 이상과 현실을 대변한다. 연꽃은 유심정토 자체로서, 대나무는 신라인들의 기상으로 표현됐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대승의 식물관 연구는 대승 불교의 가르침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방안이며 미래 지향적인 식물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며 "불교의 식물관은 상호 의존과 평등의 실천자인 대승의 보살로서 인류의 미래 환경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불교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친자연적이고 평등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경전에 수록된 식물의 역할 구명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식물을 통해 교리를 쉽게 해석하는 분야로서의 '불교식물학(Buddhist Botany)'을 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茶문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동아시아차문화硏, 9월부터 차 강좌 진행

한국의 차문화와 제작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열린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9월부터 차문화 강좌를 개설 · 운영한다. 강의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직강한다.

강좌는 한국의 차 문화 역사를 시대별로 살펴보는 '한국차 문화사 이해'를 비롯해 시대별 차 전문 서적을 통하여 차 문화를 이해하는 '한국 다서 읽기-다신전', 차 만들기의 원리 및 발달사를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차 만들기의 이해' 등이 개설된다.

차 만들기 원리 강좌는 9월 7일, 한국차 문화사 이해와 다신전 강좌는 9월 8일 각각 개강한다. 강의 장소는 서울 종로구 월드오피스텔 705호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다. 이번 강의에 대해 박동춘 소장은 "강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우수한 차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02)504-6162 신성민 기자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신입 및 수료 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이기봉 스님	월	오후 1시 ~ 7시	약간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현성 스님	수	오후 1시 ~ 7시	
3학년	각 배	각배과정	최원허 스님	목	오후 1시 ~ 7시	
4학년	영 산	영산과정	조인각 스님	금	오후 1시 ~ 7시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심만춘 스님	화	오후 1시 ~ 4시	*

■ 응시자격

❶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❷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❸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1부,
주민등록등본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해당자)

❹ **전형일정** : **2017년 8월 14일 ~ 8월 25일**

❺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❻ **특 전**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❼ **입학문의** :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 천 범 음 대 학**